

김유향 헌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헌법이론·판례·조문의 체계적 접근을 통해
출제 가능한 헌법의 논점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기본이론 강의!”

■ ■ 담 당 김유향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법학과정 수료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 원혜대학교(LMU) 헌법연구원(Visiting Scholar)
-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 現)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現)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 現) 대한한 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 現)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 現) 월비스한림법학원 헌법 전임

■ ■ 강의일정 2021년 6/7(월) ~ 6/25(금), 총 15회 ※ 동영상 강의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강사가 학원 강의실에서 독자적으로 사전 촬영한 동영상 강의로 진행합니다.
- ※ 5월28일부터 공개되는 헌법조문정리무료특강(강사가 학원 강의실에서 독자 촬영)은 기본강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하므로 기본강의 수강 전에 반드시 동영상(무료)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 시 간 [영상 강의] _ 9:00 ~ 12:20

■ ■ 강의교재 ▶ 필수교재: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사·지역인재] 기본강의헌법(2021년판, 김유향)

▶ 선택복습교재: 헌법조문정리(2021년판, 김유향) + 헌법기출문제해설(2021년판, 김유향)

※ 선택복습교재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그 구비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닌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기본강의헌법’ 한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강의는 철저히 필수교재인 ‘기본강의헌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기본강의헌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헌법조문정리’와 ‘헌법기출문제해설’을 복습교재로 잘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 강의진행
방향

1. 기본방향 - 최근 출제경향에 대한 대비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헌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2021년까지 치러진 5급 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판례가 절대적인 7급공채 헌법시험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이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 : 헌법부속법률 28% : 판례 38% : 헌정사 2%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중요 헌법부속법률인 국회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지문),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도 출제되었는데, 수험생들은 이러한 헌법부속법률 지문에서 작년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이지만 (날림이나 졸속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차분히 헌법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패스에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시험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초(헌법 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헌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선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2017년-2021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헌행 7급공채 및 국회8급 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2021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 : 헌법부속법률 14.5% : 판례 76% : 헌정사 4%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헌행 7급공채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선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2021년 시험은 예년에 비해 난이도 상승이 현저하였습니다.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본강의는 이러한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진행하되, 단순암기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출제 가능한 헌법의 논점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즉 헌법이론·판례·조문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강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5급시험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 등은 강의계획서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적인 강의진행방향

(1)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헌법이론은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 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강의를 헌법판례, 헌법조문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2) 방대한 판례의 체계적 이해·정리

헌법판례는 최근 헌법시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년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는 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미 습득한 헌법이론을 바탕으로 각 쟁점별로 이론에 부합하는 판례와 그에 부합되지 않는 판례를 구분하여 판례에 대한 체계적 이해·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도 헌법조문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바,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출 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하겠습니다.

(4) 기출지문의 확인

수험헌법에서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강의헌법’에 별표(★)처리된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이해가 필요한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 행정법과의 연계성 고려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과목으로서 그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고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행정법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강의를 진행하여 향후 2차 행정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의교재관련

(1) 필수강의교재 - ‘기본강의헌법’ 위주의 강의

‘기본강의헌법’은 수험관련 내용에 빠짐이 없고, 소개된 판례역시 부족함이 없으므로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기본강의헌법’ 한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강의는 철저히 필수교재인 ‘기본강의헌법’으로 진행합니다.

(2) 선택복습교재 - ‘헌법조문정리’와 ‘헌법기출문제해설’과 활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기본강의헌법’ 책에 소개된 내용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조문정리’ 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헌법에서 기출지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강의헌법’에 기출지문이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만, 객관식 형태의 실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습시 2017년-2021년 5급시험,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7급시험, 국회8급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함께 수록한 저의 ‘헌법기출문제해설’ 책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수강방법

1. 예습

가능한 한 예습을 하는 것이 좋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강의가 헌법 초심자를 위한 기본강의이므로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강의의 수강 등으로 여력이 없는 경우 예습을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2. 수강

강의는 빠짐없이 들어야만 합니다. 혹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 해당 강의를 최대한 빨리 수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시간의 강의시간 내내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인 이상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수업 후 제 이메일(sinha99@hanmail.net)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3. 복습

강의 중 들었던 지식을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고 시험 때까지 기억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의 중 들었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날 그날 복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강의가 기본강의이므로 암기위주가 아닌 이해위주의 복습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기출문제로 출제된 내용과 지문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기출지문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원하신다면 앞서 소개한 저의 ‘헌법기출문제해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무료특강

“헌법 조문정리 및 시험공부법 강의”안내

- 동영상 게재일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강사가 학원 강의실에서 독자적으로 촬영 후 2021. 5. 28. 게재예정
- 강의자료: 헌법 조문정리(김유향 저, 2021년판, 서점구매)
- 강의대상: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 기본강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하므로 기본강의 수강을 염두에 둔 수험생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목표:

5급 시험뿐만 아니라 7급 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무료특강에서는 헌법조문을 읽고 공부하는 법과 헌법조문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기본강의헌법	주요내용
■ 제 1 회	6월7일(월)	75~113	기본권총론
■ 제 2 회	6월8일(화)	114~153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 제 3 회	6월9일(수)	154~193	신체의 자유
■ 제 4 회	6월10일(목)	194~268	사생활영역의 자유,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제 5 회	6월11일(금)	269~309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제 6 회	6월14일(월)	310~370	정치적·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1
■ 제 7 회	6월15일(화)	371~424	사회적 기본권2, 국민의 기본적 의무
■ 제 8 회	6월16일(수)	38-74 425~436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통치구조의 구성원리1(대의제 원리~정부형태)
■ 제 9 회	6월17일(목)	437~49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2(정당제도-공무원제도)
■ 제 10 회	6월18일(금)	492-549	지방자치제도, 국회1(의회주의-재정에 관한 권한)
■ 제 11 회	6월21일(월)	550~605	국회2, 대통령
■ 제 12 회	6월22일(화)	606~659	행정부-법원, 헌법재판 일반론
■ 제 13 회	6월23일(수)	660~698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1(공권력)
■ 제 14 회	6월24일(목)	699-735	헌법소원심판2, 권한쟁의심판
■ 제 15 회	6월25일(금)	1-37	헌법총론, 종합정리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I. ‘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II. ‘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 : 헌법부속법률 28% : 판례 38% : 헌정사 2%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중요 헌법부속법률인 국회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지문),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도 출제되었는데, 수험생들은 이러한 헌법부속법률 지문에서 작년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이지만 (날림이나 속삭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차분히 헌법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패스에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아직까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선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 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2021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 : 헌법부속법률 14.5% : 판례 76% : 헌정사 4%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현행 7급공채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선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과 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2019년·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고시는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2021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국회8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난이도에 따라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현행 7급시험' 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현행 국회8급시험' 과 각 유사 또는 근접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 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 '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 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공채·국립외교원,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 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국회8급시험, 법원직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해설』(2021년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2017년~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서는 지문의 25%~38%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2017년~2021년 입법고시는 물론 7급시험, 국회8급,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헌법 기출문제에서는 그 비중이 6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2021년판)은 방대한 헌법판례를 잘 선별·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 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2021년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 柳 香